

연금투자레터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Feat : Kodex TDF 2060)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

자전거 좋아하시나요? 여름방학 혹은 휴가기간에 계곡을 따라 자전거 여행을 하거나 국토종주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TdF 2025**가 커다란 관심을 끌며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TdF는 Tour de France (투르 드 프랑스)의 약어로 세계적인 프로 로드 사이클 대회인데 3500km를 3주간 달리는 대회입니다. 1903년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올해는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약어(略語)는 긴 단어나 구절을 짧게 줄여서 표현한 어휘로, 복잡한 글자를 일부 변형 혹은 생략해서 만든 약자(略字)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아이스 아메리카노), 문상(문화상품권), 생파(생일 파티), TDF(타겟 데이트 펀드)는 모두 약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약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한글은 음절단위로 줄임말을 만들기 쉬워 합성어 생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사회적 특성상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고, 집단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약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에 반해 알파벳도 약어를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 만큼 일상대화에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26개라는 한계로 인해 동일한 약어가 많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TDF는 '타겟데이트 펀드'지만, '투르 드 프랑스'면서, 'To Die For'(끝내주는)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뉴욕증권거래소에 TDF 티커로 상장된 종목은 '템플턴 드래곤 펀드'입니다.

자료: 삼성자산운용 연금마케팅팀 ※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TDF로 분류되는 펀드들은 다양한 이름 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용사명과 함께 Target Retirement 2035, Lifepath 2040, Freedom 2050 등의 이름을 넣어 펀드명을 넣습니다. 목표시점, 은퇴, 인생 여정, 그리고 자유가 키워드입니다.

타겟데이트 펀드를 펀드명에 'TDF'로 통일해서 포함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 한국형 TDF'**, **'삼성 ETF를 담은 TDF'** 혹은 **'Kodex TDF'** 형식으로 네이밍합니다. 약어를 좋아하면서 상품의 특징 혹은 감성까지 녹아내려서 K-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Let's invest in a TDF (Target Date Fund) that's truly TDF (To Die For) so we can finally go watch the TdF (Tour de France) live!

오늘은 TdF(투르 드 프랑스)를 직관하며 프랑스를 즐기기 위해 투자하면 좋을, 정말 TDF 한 (끝내주는) 상품인 **Kodex TDF**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Feat : Kodex TDF 2060)

멀리 가려면 높은 곳에서 활공(glide)해야 한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 갈매기의 꿈 (리차드 바크)

새들은 멀리 날기 위해서는 활공(glide)을 합니다. 날개짓(fly) 만으로 멀리 날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지치지 않고 멀리 안정적으로 날기 위해 활공(glide)을 하듯, 노후까지 지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glide path를 활용하는 TDF에 투자하는 것은 꽤나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나친 날개짓(시황에 의한 단타매매)이 피곤함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는 목적지가 멀면 고도를 높입니다.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저항이 줄기 때문입니다. 서울 ~ LA간 국제선은 10,000 ~ 12,000m 의 고도로 비행하고, 서울 ~ 제주간 국내선은 6,000 ~ 8,000m 의 고도로 비행합니다.

목표시점(은퇴)이 멀면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이 줄기 때문입니다. 누적투자금액은 작고, 미래소득가치는 높은 젊은 세대라면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자산(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비중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어여뵈 여겨 노후자금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시장 미성숙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비중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미국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의 상한은 70%입니다. 그나마 과거 40%에서 2015년 7월 9일 부터 상향된 것입니다. (DC, IRP,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2조)

다행히 투자자별 위험선호도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와 심지어 TDF를 활용해서도 퇴직연금 자산을 100% 투자 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 9월 부터는 적격 TDF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적격TDF제도는 운용 중 위험자산 상한 80%, 목표 시점(Target Date) 이후 위험자산 40% 이하로 투자 하는 TDF의 경우 위험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연금 자산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연금투자자가 생각하는 위험성향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TDF는 매우 잘 설계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자는 초기 위험자산을 더 늘리고 싶어 하거나, 위험자산 글라이드 패스를 바꿔보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대부분의 공항은 글라이드 패스 각도를 3° 로 가져 가지만 런던 히드로공항이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공항은 기존 3° 에서 3.2° 로 일부 변경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형이나 짧은 활주로 때문이 아닌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전과 현실적인 불편함과 같은 문제를 적절히 고려 하는 전략적 선택인 것입니다.

자료: 삼성자산운용 연금마케팅팀 ※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Feat : Kodex TDF 2060)

위험자산을 늘리고 싶어하는 투자자에게 적격TDF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제도상 상한(70%) 까지 투자한 투자자가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Kodex TDF 2060 액티브 ETF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Kodex TDF 2060 액티브 ETF는 은퇴전 30년 까지 주식비중 80%를 유지하고, 그 이후 시점에 따라 매년 1.6% 혹은 2%씩 주식비중을 감소시킵니다.

제도상의 한계에 따라 안전자산에 30%로 투자하는 대신 2060 ETF 에 30%를 투자하면 전체 위험자산 (주식) 에의 비중을 최대 94%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주식형 70% + 2060 ETF 30% × 주식비중 80%)

수익과 위험을 적절히 조합하는 다양한 전략이 Kodex TDF 2060 액티브 ETF를 활용하여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자산배분을 책임져 줄 T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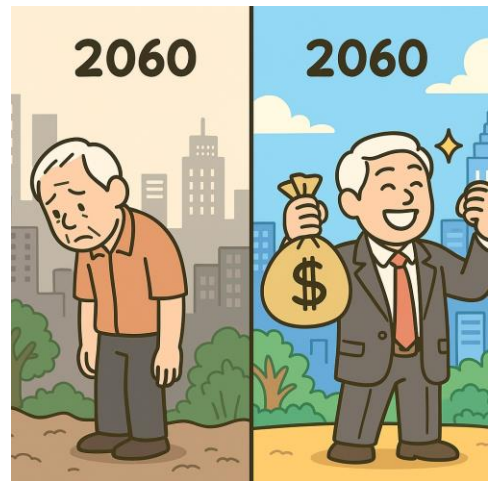
올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쿠르츠게작트 (Kurzgesagt) 라고 하는 독일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4월 2일 게시했던 'South Korea is Over'로 이미 1300만 뷰가 넘었습니다.

동영상 초반 23초의 스크립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은 끝났습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수십년 동안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출산율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오늘 알고 사랑하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60년에는 한국 인구가 30% 감소하고 인구의 절반이 65세이상일 것이다.' '또한 현재 73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노인 1명당 노동인구가 1명 미만인 되어 2060년의 한국경제는 이미 붕괴했을 수도 있다' 고 이야기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은 아니지만, 노후자산 축적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임을 깨닫게 해 주고, 특히나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Kodex TDF 2060 액티브 ETF가 7월 22일 상장됩니다. 아무래도 2060년 이후까지 계속 투자하려면 국내주식보다는 전세계 주식에 투자해야 마음이 편해 보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주식에 50%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 iShares MSCI ACWI ETF), S&P500 지수에 30%를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48개국에 분산투자 될 예정이며, 2035년 까지는 주식비중을 약 80%로 유지함으로써 **젊은 공격적 투자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삼성자산운용이 새롭게 낳은 영 빈티지 (Young Vintage) TDF가 2060년 이후 Old Age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요? 🍷🍷🍷🍷

자료: 삼성자산운용 연금마케팅팀 ※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Feat : Kodex TDF 2060)

투자레터를 시작하며...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투자관련 자료는 어렵기만 합니다.

투자과 관련된 업무를 오랜 시간 해왔어도 신문기사 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건조해서 화장품을 사러 갔는데 Moisturizing Soothing Combination Water-rich Therapic 크림을 준다고 해서 뭐냐고 한참 물어보면 결국 수분크림이었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연금 투자와 관련된 사항/투자전략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자료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비정기적이지만 꾸준히 연금투자 전략을 투자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Kodex TDF 2060 액티브

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총보수 - 최초설정일 ~ 2040.12.31 : 연 0.30% (운용 : 0.279%, 판매 : 0.001%, 신탁 : 0.01%, 사무 : 0.01%)
 - 2041.01.01 ~ 2050.12.31 : 연 0.25% (운용 : 0.229%, 판매 : 0.001%, 신탁 : 0.01%, 사무 : 0.01%)
 - 2051.01.01 ~ 투자신탁해지일 : 연 0.20% (운용 : 0.179%, 판매 : 0.001%, 신탁 : 0.01%, 사무 : 0.01%)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펀드의 판매 또는 권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가 정보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펀드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펀드에 가입하시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과거 실적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